

四象醫學의 概要

朴 寅 商*

東武李濟馬先生의 四象醫學은 自他가 公認하는 바와 같이 偉大한 發明을 한것은 틀림 없는 事實이지만 이것을 더 發展시키지 못한 것은 四象醫學을 하는 사람들의 責任이 크다고 思料된다.

勿論 學術인 理論도 重要하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지만 제일 問題가 되는것은 體質 鑑別이다.

患者들이 말하기를 여러先生님한테 가면 가는곳마다 體質이 다르니 어떤사람의 말을 믿어야 옳으냐고 質問할때 무어라고 對答을 하여야 옳을지 참으로 답답함을 免할 수 없다.

勿論 各自가 자기나름대로 自信 있게 診療하였겠지만 이것은 現代科學으로 證明할 道理가 없음을 遺憾으로 思料됩니다. 하루빨리 科學으로 診斷하는 方法이 發明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四象醫學을 專攻하는 醫者의 責任이 重要함을 통감하오며 나의 主張은 患者마다 全部를 鑑別하고자 하지말고 太陽人은 其數가 적음으로 잘 모르고, 典型的인 太陰人 典型的인 少陰人이 아니면 마구 投藥을 하지말고서 古方이나 後世方으로도 잘 낫는 藥이 있으니 나름대로 治療을 하고서 잘 觀形 察色을 하고 問症을 하고 단계적으로 體質을 確實하게 알고난 후에 四象方을 쓰도록 하는게 上策이라고 勸告한다.

體質을 안다해도 陰陽虛實은 分明히 알고서

投藥을 하여야 하며 東武先生의 處方外는 絶對로 써서는 안된다고 固執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再考하여 볼 必要가 있다고 思料됩니다.

변증론의 연구

동무선생이 저술하신 동의수세보원 책자에 기재되어 있으나 잘 이해를 못하고 혹은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오진하여 그 잘못된 것을 모르고 동의보감 의학입문등의 선입감 때문에 사상 의학설이 흉리(胸裏)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도 있으려니와 대개는 사상방에 의하여 용약한 결과 신통한 효과를 보지 못함으로 도리어 그 학설을 배격하고 그 책을 버리게 된 것이다. 자기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연구가 부족함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학설을 공박함은 실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상학설이 아무리 간편하다고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고 얻을 수야 있겠는가? 많은 연구와 경험이 쌓인 후에 어느정도 자득의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변증에 있어 선생이 이미 상론(詳論)하신 바와 같이 주로 외체 즉 배(背), 흉(胸), 방광(膀胱) 어느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자를 관찰하여 장(臟)의 대소를 측정한다. 그러나 후 외형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기상과 피부의 찰색과 맥도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참조해야 한다. 나의 우견으로는 태음인이 50%, 소음인이 30%, 소양인이 20%, 태양인이 1%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가량으로 사료된다.

태양인은 데수그니(腦頤)가 왕성하고 요위(腰圍)가 약하며 얼굴은 모나며 등글고 과단기(果斷氣)가 있으며 성질이 소통하고 교우에 능하며 깊은 애성(哀性)과 폭발하는 노정(怒情)이 있으며 장부는 폐대간소하니 항상 나아가고자 하고 물러나고자 하지않으니 「龍」의 성이라한다.

태음인은 요위(腰圍)의 서있는 형세가 왕성하고 데그수니(腦頤)가 약하며 기육이 견실하고 정대(正大)한 기가 있으며 성질은 성취성이 있고 거처에 능하며 깊은 희성(喜性)과 허랑한 락성(樂性)이 있으며 항상 정(靜)코저 하며 동코저 아니하니 「牛」의 성이라한다.

소음인은 방광이 앓은 자세가 왕성하고 흉부가 약하며 기육이 부연(浮軟)하며 성질은 단중(端重)하고 (경망스럽지 않고) 黨與(친숙하며 한편이 되는 것)에 능하며 깊은 락성(樂性)과 허랑된 희정(喜情)이 있으며 항상 거처(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것)코저 하고 출(出)코저 하지 아니하니 나귀「驢」의 성이라 한다.

소양인은 흉부가 왕성하고 방광의 앓은 자세가 약하며 입술(唇)과 턱(頤)이 얇(淺薄)으며 날래고 강맹한 기가 있으며 성질은 급하고 사무에 능하며 깊은 희성(喜性)과 폭발하는 애정(哀情)이 있으며 항상 동코저 하고 정코저 아니하니 「馬」의 성이라 한다.

태양인 체형은 그 숫자가 적어서 가장 분별하기 어렵다. 그의 병은 열격(噎膈), 반위증(反胃證), 해역증(解衣證)이 있어 저절로 분별하기 쉬우나 이 증세가 심하기 전에는 별로 큰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완전하고 무병건강한 사람같다. 또 소음인 노인에게도 열

격증(噎膈證)이 있으니 태양인 병으로 잘못 다스려서는 안된다. 태양인 여자는 체형이 견실하나 간장이 작아서 자궁이 부족한 관계로 생산하는 수가 적다. 태음인과 소음인이 서로 방비(彷彿)하여 소음인도 키가 작은 자도 있어 분별하기 어려운 자가 있으니 병증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태음인이 허한(虛汗)하면 완실(完實)하고 소음인이 허한하면 대병이니라.

태음인이 건강(堅剛)하면 대병이요, 소음인이 건강하면 완실하다.

태음인은 정충증(怔忡證, 심계항진 즉 가슴 두근거리는 것)이 있으며 소음인은 手足攙亂(수족이 떨리고 힘이 없는것)이 있다.

태음인은 目眦上引證(눈갓이 위로 당기는것)及 目睛內疼證(눈알이 아픈것)이 有하고 소음인은 이런 증이 없다. 소음인은 평시 호흡에 간혹 太息(한숨 쉬는것)을 하는 증이 있으나 태음인은 이런 증이 없다.

태음인은 학질의 오한증에 능히 냉수를 마시되 소음인은 냉수를 마시지 못한다.

태음인은 恒常怯心이 있으니 怯心이 怔忡證(가슴 두근거리는 것)에 이르면 대병이요 소양인이 懼心(두려운 마음)이 있으니 懼心이 健忘에 이르면 險證이다.

소음인은 항상 불안정한 마음이니 마음을 진정하면 脾氣가 부활되고 태양인은 항상 急迫之心(조금도 여유가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을 진정하면 간장 피가 부드러워질 것이다.

태양인은 소변이 잘 통하면 완실하여병이 없고, 태음인은 땀이 잘 통하면 완실하여 병이 없고, 소양인은 대변이 잘 통하면 완실하여 병이 없고, 소음인은 음식이 잘 소화되면 완실하여 병이 없다.

태양인이 噎膈證이 있으면 胃脘의 상초가 흠어져서 바람과 같고, 태음인은 痢疾病에 걸리면 소장의 중초가 막혀서 「안개」 같고, 소양인이 대변이 통치 못한즉 흉격이 불과 같이 타는것 같고, 소음인이 설사가 멎지 아니한즉 배꼽아래가 얼음같이 차다.

태양인은 항상 怒心과 衰心을 경계해야 하고, 소양인은 항상 衰心과 怒心을 경계해야 하고, 태음인은 항상 樂性과 喜心을 경계해야 하고, 소음인은 항상 喜心과 樂心을 경계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壽하지 못할 理가 없다. 사람의 체형과 기상을 자세히 살펴보되 미혹함이 있으면 병증으로 참조하여 명확하게 판단한 연후에 약을 쓸 것이요, 경솔하게 못할 것이며 위험한 증세에는 한첩 약이 사람을 죽인다. 화타는 말하기를 「養生之術은 매양 노력은 적게 하고 疲勞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노인은 「사람은 하루 두번 먹으면 족한데 네번 다섯번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또 이미 먹고 난 후에 또다시 먹는 것도 좋지 않으니 먹지 말것이다. 이와같이 하면 오래 壽하지 못할 理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동무선생의 말씀에 한 고을 사람 만명중에 태음인이 5천이요, 소양인이 3천이요, 소음인이 2천이요, 태양인은 1~2명 혹은 3~4명에 불과하다고 하시었다. 필자의 淺見으로 볼때 지방에 따라서 차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조함이 좋을 것 같다.

평소경험한 것을 참고 삼아 기록하니 연구 자료로 하면 다행이겠다.

1. 氣象을 본다.

• 태음인은 무겁고 점잖은 기상이 있고, 소음인은 침착하고 端重한 기상이 있고, 소양인은 날래고 강맹한 기상이 있다. 태양인은 과단성이 있다.

2. 체형을 본다.

• 태음인은 허리와 배의 서있는 형세가 왕성하고, 소음인은 방광이 벌어진 편이요, 양갈비가 좁다. 소양인은 흉부가 왕성하며 양갈비가 벌어진 편이다. 태양인은 뒤통리가 일어난 형세가 왕성하다.

3. 피부를 본다.

• 태음인은 두텁고 거칠다. 혹 부드러운 자도 있다.

• 소음인은 연하고 부드럽다.

• 소양인은 미끄럽고 얇어 보인다.

• 태양인은 소음인과 비슷하다.

4. 맥을 본다.

• 태음인은 길고 긴하다.

• 소음인은 느리고 약하다.

• 소양인은 뜨고 잦은 편이다. 혹 미약한 자도 있다.

5. 특징을 본다.

• 태음인은 준두가 풍부한 자가 많으며 毛孔이 큰편이다.

• 소음인은 앞머리가 고수머리털이 있는 자가 많다. 毛孔이 작다.

• 소양인은 앞머리가 성글고 빠드러진 자가 많다. 毛孔은 보통이나 큰 자도 있다.

• 태양인은 수척하여 보이거나 용모가 뚜렷하다.

6. 行步를 본다.

• 태음인은 발이 무겁고 혹 허리를 흔드는 자도 있다.

• 소음인은 조심성 있게 걷는 편이다.

• 소양인은 몸을 흔드는 자가 많다.

발이 가볍다.

• 태양인은 발이 가볍다.

7. 음성을 듣는다.

• 태음인은 말이 적으며 어운이 웅장한 자도 있으나 대개는 침중한 편이다.

- 소음인은 침착하고 온순한 편이다.
- 소양인은 어운이 맑고 기운이 좋은 편이다.
- 태양인은 말이 많고 급하다.

8. 성질을 본다.

• 태음인은 정직하고 고집이 세고 변동이 적다. 얼굴에 항상 희성을 띄운자, 미련하고 우둔한 것도 태음인의 특징이다.

• 소음인은 온순하고 침착하나 초조한 자도 있으며 얼굴에 樂性을 띄운다. 급하긴 하여도 내성적이어서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도 소음인의 특징이다.

• 소양인은 급하여서 발끈발끈 하며 참을성이 없다. 얼굴에 怒性을 잘 띄운다. 썩썩하고 인정많은 것이 소양인의 특징이다.

• 태양인은 과단성이 있어 앞으로 나가고 후퇴를 모른다.

소양인은 급하여서 발끈발끈하며 참을성이 없다. 얼굴에 怒性을 잘 띄운다. 썩썩하고 인정많은 것이 소양인의 특징이다.

9. 기능과 좋아하는 것을 본다.

• 태음인은 거처에 능하며 대개 오락을 좋아한다. 일은 싫어하며 사무에 민달하지 못하나 연구가 깊고 뒤를 염려하는 생각이 주밀하여 성취성이 강하다.

• 소음인은 천우교재에 능하고 매사를 세밀하게 잘 처리하나, 꼼꼼하여서 일에 진전이 없음을 볼 수 있다. 박력이 없는 편이다.

• 소양인은 활동력이 강하여서 일을 좋아하며 두뇌가 명석하여서 판단력이 빠르며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잘 보아준다.

• 태양인은 성질이 소통하고 교우에 능하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10. 평소의 증세를 본다.

• 태음인은 하절에 땀을 많이 흘린다.

열이 많은 자는 찬물을 좋아하며, 한이 많은 자는 더운 물을 좋아한다. 겁이 많은 편이다.

• 소음인은 비위가 약하여서 소화기장애가 많다. 더운 물을 좋아한다. 열이 많은 자는 냉수도 잘 먹는다.

• 소양인의 위병자가 대개는 변비가 있다. 신경성병이 많다. 냉수를 좋아한다.

• 태양인은 가슴이 갑갑하고 토하기를 잘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습관성이야말로 제 2의 천성이라고 하겠다. 가정환경의 지배를 받은 영향도 크고, 그 지방 각각의 특색도 있고 시대에 따른 유행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 어느 특수운동을 할때 신체의 어느부분이 극도로 발달된 점도 있고하니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서 체질을 가린다는 것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근자에 와서 척도법으로 몸을 재어 보고서 사상을 가리는 선생도 있고, 맥을 보고서 가리는 선생, 또는 관형찰색만 가지고 가리는 선생도 있고, 침으로 가리는 선생도 있음을 볼때 그 어느 것도 일리는 있으나 완전무결한 것은 없음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현대과학으로 확정을 못 본 점이 유감스럽기 한이 없다.

四端論의 연구

이제마 선생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一己의 慾이 있으면 堯舜의 마음이 아니오, 잠깐이라도 천하의 근심이 없으면 孔孟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시었다. 선생은 참으로 無慾者이시다. 선생의 사상학설을 배우는 자가 먼저 선생의 無慾을 배워야 사상변증에 올바르게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욕심이 있으면 눈이 어두워질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잡념과 사욕을 버리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누구나 선생의 이 글을 읽으면 각자의 체질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으로 업을 삼는 자는 매일 수십명을 진찰할 때 아무리 총명한 재질을 가진 자라도 오진이 없을 수 없으리라고 믿는다. 체형이 분명히 나타나고 또 특징이 있는 자는 분별하기 쉬우나 특징도 없고 체형과 기상이 분명치 아니하여 분별하기 곤란한 자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맑은 마음으로 默識心通의 공부가 아니고서는 다른 묘방이 없으리라고 사료된다.

이제마선생은 말씀하시기를 노자나 석가가 욕심을 정거하기 위하여 청정 적멸을 주장해 왔다. 노자는 마음을 항상 맑고 깨끗한 곳에서 찾기 때문에 소위 신선을 동경했고, 석가는 마음을 항상 모든 음성이 들리지 않고 모든 자취가 끊어진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극락세계를 동경했다. 이제마선생은 현실을 떠난 노자나 석가의 無慾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백성을 위해 근심하던 堯와 舜, 공자와 맹자의 무욕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다.

用藥論

이제마선생이 제반약재를 사상에 분류하여 처방을 정하시었다. 그것은 본초에 의하였지만 선생의 창작하신 묘한 처방이다.

선생 말씀에 「소양과 소음인 처방은 자세히 구비되었으나 태양인과 태음인은 경험이 많지 못하여 겨우 간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소양인과 소음인에 있어서는 선생이 정하신 처방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에 용이한

점도 있다.

현대 의사들이 본초에만 의거하여 각자의 의견으로 선생의 처방에 가감하는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소양인 질병에 黃連清腸湯의 처방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본방에 木通 二錢을 去하고 荊芥 一錢을 加하면 임질을 치료한다」고 하시었다. 목통은 세상에서 알기를 利小便하는 약으로 아는데, 임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거늘 어찌하여 목통 두 돈을 제거하고 형개 한돈을 가하라고 하시었는가? 목통 두 돈을 그대로 두고 형개 한 돈을 가하면 더욱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선생의 약성론에 말씀하시기를 「목통은 신장을 장실케하여 내외에 충족케하는 힘이 있다」고 하시었다. 선생은 목통을 보약으로 규정하시었으므로 임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리는 약으로 집중하여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하는 약은 불가하므로 목통은 버리라고 하신 것이다. 이로 보더라도 시험하신 후에 처방을 정하심이 틀림없을 것이니 후인들도 선생과 같이 여러번 시험하지 않고는 함부로 본초에만 의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개 사람의 질병이란 내부에서 발생한 자는 반드시 기운의 승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衰慾의 기운은 위로 오르고, 喜樂의 기운은 아래로 내린다」고 하시었다. 오르는 기운이 많은 자는 상초가 허약하나니 치료하는 방법은 상초가 허약한 자는 약을 써서 기운을 올려야 하고, 하초가 허약한 자는 약을 써서 기운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의학의 大要인 것이다. 양의학은 국부 치료에만 주력하고 기운의 승강하는 이치에는 전연 어두워 완전한 의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약물이 사람에게 보익하는 것은 약물이 체내에 계란과 우유와 같이 사람에게 보익하는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체내에 있는 기운을 올리고 내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체질이 상초가 약한 자는 반드시 하초가 왕성하고, 하초가 약한 자는 반드시 상초가 왕성하니, 약물이 사람의 체내에 있는 기운을 끌어 올려서 상초를 보하고 밀어 내려서 하초를 보하는 효능이 있을 따름인 것이다.

인삼과 녹용을 예로부터 진귀한 약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다만 인삼은 원기를 보하고 녹용은 보음한다고만 말했고, 그 이유를 명백히 말한 대문은 별로 없다. 또 과학만능을 주장하는 현대학자들도 무엇 때문에 인삼, 녹용이 좋은 약인가를 아는 자가 별로 없다. 인삼은 하초에 있는 기운을 끌어 올려다가 비장을 보하고, 녹용은 중·하초에 있는 기운을 끌어 올려다가 폐장을 보하니, 그러므로 비장이 약한 자가 인삼을 복용하여 큰 효력을 얻고 폐장이 약한 자가 녹용을 복용하여 많은 효력을 얻는다. 속지황과 산수유는 중·상초에 있는 기운을 밀어 내려 하초를 보하므로 신장이 약한 자가 복용하여 효력을 얻고 獼猴桃와 蕎麥 등은 상초에 있는 기운을 밀어내려 중·하초를 보하므로 간장이 약한 자가 복용하여 효력을 얻는 것이다. 東武선생이 창작하신 사상의학설이 아니고는 약물의 효능을 진지하게 설명하는 자가 있을 수 없으니 이 얼마나 천만고에 다시 없는 위대한 발명이겠는가 사료된다.

현재 의사들이 본초에만 의거하여 각자의 의견으로 선생의 처방에 가감하는 예가 있으나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廣濟說의 연구

현대 물질만능을 자랑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수양을 쌓아서 정신신경이 안정되지 않으면 병치료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만능시대라 할지라도 마음의 안정없이는 만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제마선생이 말씀하신 광제설이야말로 현대인이 꼭 보아서 실천에 옮기면 더할나위 없는 좋은 수양서이다.

1세로부터 16세까지를 유아(幼兒)라고 말하며, 17세로부터 32세까지를 소년(少年)이라고 말하며, 33세로부터 48세까지를 장년이라고 말하며 49세부터 64세까지를 노년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유년시기에는 듣고 보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니 봄철에 터나오는 싹과 같고, 소년시기에는 용맹을 좋아하고 날뛰며 빠르니 여름철에 자라는 묘목과 같고, 장년시기에는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수양을 하니 가을철에 따 들이는 열매와 같고, 노년시기에는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고 비밀을 잘 지키니 겨울철에 장복된 뿌리와 같다.

유년시기에 문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호걸이며, 소년시기에 어른과 늙은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소년의 호걸이며, 장년기에 박애를 하는 사람은 장년의 호걸이며, 노년기에 사람을 옹기 보호하는 사람은 노년의 호걸이다. 좋은 재능이 있고 또 좋은 心術까지 충분히 가진 사람은 참된 호걸이고, 좋은 재능이 있어도 충분히 좋은 心術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재능뿐이다.

유년시기에 보고 듣는 것이 부족한데다가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하는 것이 교착하면 병이 되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마땅히 보호할 것이며, 소년시기에 용맹이 부족한데다가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는 것이 교착하면 병이 되니 지혜있는 아버지와 능숙한 형이 마땅히 보호할 것이며, 장년시기에는 착한 동생과 좋은 벗이라야 지도할 수 있을 것이며, 노년

시기에는 효자, 효손이라야 부양할 것이다. 착한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착한 사람이 모이고, 악한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악한 사람이 모인다. 착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착한 정신이 활동하고 악한 사람이 모이면 악한 행동이 왕성하다. 술, 이성, 재물 권세를 좋아하는 집에는 악한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므로 그 집 효남, 효부까지도 병을 받는 것이다.

권세를 좋아하는 집에는 朋黨(주의, 이해를 같이한 사람이 하나로 결합하여 다른 사람을 배격하는 단체)이 어울려 친하니 그 집을 패망케 하는 자는 붕당이며, 재물을 좋아하는 집에는 자손이 교만하고 어리석으니 그 집을 패망케 하는 자손 사람의 집에서 모든일이 잘 되지 않고 질병이 끊이지 않으며, 선과 악이 서로 대치되어 그 집이 장차 패망할 지경에 이르면 오직 명철한 자애로운 아버지와 효자라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교활하고 사치하면 수명을 감소시키고, 태만하면 수명을 감소시키고, 성질이 편급하면 수명을 감소시키고, 욕심이 많으면 수명을 감소시킨다. 사람이 교활하고 사치하면 반드시 미인을 탐하고, 사람이 태만하면 반드시 술과 음식을 탐하고, 사람이 성질이 협애하면 반드시 반드시 권세를 다투고,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반드시 돈과 재물로 망친다.

일을 덜어서 손쉽게 하면 장수하고, 부지런하면 장수하고, 경계하면 장수하고, 지혜가 있으면 장수한다. 사람이 일을 덜어서 손쉽게 하면 반드시 미인을 멀리하고, 사람이 부지런하면 반드시 술과 음식에 청결하고, 사람이 경계하면 반드시 권세를 피하고,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돈과 재물에 청백하다.

거처가 쓸쓸하고 적막한 것은 색 때문이며, 행실이 불량하고 비루한 것은 술 때문이며, 마

음이 악착하지 못하고 문란한 것은 권세 때문이며, 사무가 혼란한 것은 재물 때문이다. 만약 약에 덕이 있는 부인을 따르면 색에서 공정한 도리를 취할 것이며, 만약 좋은 벗을 친하면 술에서 좋은 덕행을 취할 것이며, 만약 현명한 사람을 사모하면 권세에서 정당한 술책을 취할 것이며, 窮民(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없는 노인)을 보호하면 재물에 안전한 공로를 취할 것이다. 酒, 色, 財, 權을 예로부터 경계하는 바 감옥에 비교하였다. 다만 일신의 수요와 일가의 화복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치안도 역시 여기에 달렸다. 만약 온 세계로 하여금 주, 색, 재, 권의 문란한 풍기가 없게 된다면 거의 요, 순, 周召南(주나라 초기의 이상적인 시대를 표현하는 말 「시경」의 周南과 召南을 인용한 것이다)의 세상에 접근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간약하고 부지런하며, 경계하고 지혜가 있고, 경계하고 부지런한 세가지를 소유한 자는 어지간히 장수하고, 교활하며 사치하고 부지런하며, 경계하고 탐욕하거나 혹은 간약하고 태만하며, 편급하고 지혜가 있는 등 두가지를 소유한자는 주의하면 장수하고, 태만하면 단수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경하면 반드시 장수하고, 태만하면 반드시 단수하며, 부지런하면 반드시 장수하고, 허탐하면 반드시 단수한다.

배고픈 사람의 장위가 먹을 것을 얻기에 급급하면 장위가 편안치 못할 것이며, 빈한한 자의 뼈가 재물을 얻음에 급급하면, 힘이 쇠하여질 것이다. 배고파도 배고픔을 참으면 장위가 튼튼할 것이며, 빈약하여도 빈약함을 극복하면 뼈의 힘이 견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이 능히 배고픔을 참고 배부름을 탐하지 않는 것이 공경이고, 의복은 능히 찬 것을 견

디고, 따뜻한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공경이고, 근역은 부지런히 일하고 편안한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공경이고, 재물은 능히 근실히 하고 무리한 횡재를 얻는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공경이다.

산골 사람은 듣고 본 것이 없음으로써 단수케 되고, 도시 사람은 간약함이 없음으로써 단수케 되고, 농촌 사람은 부지런함이 없음으로써 단수케 되고, 독서하는 사람은 경계함이 없음으로써 단수케 되는 것이다.

산골 사람은 마땅히 듣고 볼 것이니 듣고 본 것이 많으면 장수케 되고, 도시 사람은 마땅히 간약을 할 것이니 간약하면 장수케 되고, 농촌 사람은 마땅히 부지런할 것이니 부지런하면 장수케 되고, 도를 닦는 학자들은 마땅히 경계를 할 것이니 경계하면 장수케 될 것이다.

산골 사람이 만약 듣고 보는 것이 많으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곧 산골의 호걸이며, 도시 사람이 만약 간약함이 많으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곧 도시의 호걸이며, 농촌 사람이 만약 부지런함이 많으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곧 농촌의 호걸이며, 도를 닦는 학자가 만약 경계함이 많으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곧 학자의 호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농부는 원래 노력을 하니 가장 부지런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부지런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학자는 원래 독서를 하니 가장 경계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경계함이 없다고 말하는가? 내가 대답하기를 백묘의 땅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은근한 근심을 삼는 것은 농부의 임무이다. 농부를 학자에 비하면 참으로 나태한 자이며, 학자는 독서만하는 까닭에 마음이 항상 망령되고 자궁하며, 농부

는 전혀 글을 모르는 까닭으로 마음에 항상 명심하는 것이니 학자를 농부에 비하면 참으로 경계하지 않는 자이다. 만약 농부로서 문자를 알 때 힘을 쓰고, 학자로서 노력을 배우면 재능이 조밀하며 장기(臟氣)가 견고하여질 것이다.

교활하고 사치한 자의 마음은 여염의 생활을 경시하며 사치와 가정을 경솔히 여기고 소견이 부화 방탕하여 전혀 산업의 艱苦(힘들고 어려운 것)한데 대해서는 몽매하고 경제에 극히 무관심하며 매양 여색으로 인하여 패가망신하면서도 끝끝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태만한 자의 마음은 극히 거칠고 마음은 들떠서 적은 것으로서 많은 것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고 항상 허무 맹랑한 공상을 품게 된다. 대개 그 마음이 심히 부지런함을 꺼림으로 항상 술 많은 곳으로 도망하여 가서 부지런함을 피하려는 계책만 하려고 한다. 대체로 태만한 자이면 술에 방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다만 술에 방종한 자를 보게 되면, 반드시 그가 태만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거칠고 들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색이 살인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주독이 장위를 손상하고 색로가 정액을 고갈케 한다고 하나, 이것은 그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술에 방종하는 자가 그 몸을 부지런히 쓰기를 싫어하니 우환이 산과 같으며, 색에 유혹된 자는 그 여자를 깊이 사랑하니 우환이 칼과 같다. 만단의 우수가 주독과 색로(色勞)와 더불어 힘을 합해 공격함으로써 살인하는 것이다.

狂童(불량한 남자)이 반드시 淫女(음란한 여자)를 사랑하고 음녀가 역시 광동을 사랑하며, 어리석은 사나이가 반드시 투부를 사랑하고 투부가 또한 어리석은 사나이를 사랑한다.

음녀는 광동과의 배필에 적합하고 어리석은 사나이가 역시 투부와외의 배필에 적합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개 음녀와 투부는 악인과 천인과의 배필은 될 수 있으나 군자와 귀인과의 배필은 될 수 없는 것이다. 七去의 惡(一. 부모에게 불효한 여자, 二. 아이를 못 낳는 여자, 三. 음란한 여자, 四. 질투하는 여자, 五. 나쁜 병이 있는 여자, 六. 말이 많은 여자, 七. 도둑질한 여자) 가운데 음란한 것과 질투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첫째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투'라는 글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만 여러 첩을 증오하는 것만으로써 말을 한다. 귀인도 선조의 후계가 가장 중대한 문제인 즉 부인이 반드시 귀인이 첩을 두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소란케 하는 장본이 일찌기 많은 첩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부인으로서 많은 첩 중에서 간교하고 아첨하는 자들만을 증오하는 것은 오히려 부인에게 있어서 현명한 품성일 것이니 무엇이 투字의 뜻에 해당되는 것이겠는가? 시전에 이르기를 복숭아 꽃이 아름다운데 그 잎도 무성하였다. 이 신부가 출가함으로써 그 가정을 평화케 한다는 것은 어진 사람을 즐겨 가화케 함을 말한 것이고, 그 가정을 다 평화롭게 못한다는 것은 어진 사람을 시기하고 능한 사람을 미워하여서 가정을 적함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대개 사람의 집에 질병이 끊이지 않으며 사망이 계속 있으며, 자손이 어리석으며 자산이

영락하여지는 것은 어리석은 사나이와 투부가 어련이를 질투하며, 능한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기인되지 않는 것이 없다.

천하의 악이 어진 사람을 질투하며 능한 이를 증오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없으며, 천하의 خوبی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즐겨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어진 사람을 질투하거나 능한 사람을 증오하지 않고서 악을 한다면 악이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며, 어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즐겨하지 않고서 선을 한다면 선이 반드시 크지 못할 것이다.

어진 사람을 질투하고 능한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천하의 많은 병증이고 어진 사람을 좋아하며 선한 사람을 즐겨하는 것은 천하의 큰 약이다.

옛 글을 날날이 참고하면 천하의 병을 받는 것은 모두 다 어진 사람을 질투하며 능한 사람을 증오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며, 천하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모두 다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사람을 즐겨하는 데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질투하고 능한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천하의 많은 병증이고, 어진 사람을 좋아하며 선한 사람을 즐겨하는 것은 천하의 큰 약이다.

이상은 광제설을 번역한 것이지만 병을 고치 고자 하면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